## 2025년 6월 12일 일기 피드백입니다.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원래 문장 | 자연스러운 표현 | 설명 |
| 오늘은 혼자 회사까지 걸어갔습니다. | 오늘은 혼자 걸어서 회사에 갔습니다. | ‘걸어서’가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연결어 |
| 회사에 도착했을 때 물을 마셨습니다. | 회사에 도착해서 물을 마셨습니다. | ‘~했을 때’도 맞지만 ‘~해서’가 일상적 표현 |
| 오늘은 9시 30분에 회의가 있습니다. | 오늘은 9시 30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. | 이미 과거이므로 시제 수정 필요 |
| 오늘 우리 팀은 고우가 여의도점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. | 오늘 우리 팀은 ‘고우가’ 여의도점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. | 음식점 이름을 따옴표로 구분하면 더 읽기 쉬움 |
| 택시 안에는 팀장님, 과장님, 비미은님 그리고 저는 있었습니다. | 택시에는 팀장님, 과장님, 위미은님,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이 있었습니다. |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더 매끄럽고 읽기 좋음, 이름 수정 |
| 와인을 마십니다. | 와인을 마셨습니다. | 과거 회상이므로 시제 수정 |
| 우리 팀은 제 누나 VIEAM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. | 우리 팀은 VIEAM님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. | 과거 이야기라면 ‘축하했습니다’로 시제 수정, 위미은은 직장동료임. 직장동료에게는 제 누나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 |
| 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| 저는 업무를 계속했습니다. | 회사를 돌아간 후의 흐름에는 ‘계속했습니다’가 자연스러움 |